

중국 조선족들의 눈에 비친 한국, 한국인

—허련순의 작품을 중심으로

정 선 주*

요약

1999년 『재외 동포법』의 재외 동포의 법적 지위를 누릴 수 없었던 조선족. 그 후 2004 법 개정으로 그들은 동포의 지위는 얻었지만 다른 동포들에 비해 여전히 체류비자의 종류에 따른 제약과 차별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이런 제약과 차별 속에서 살아가는 조선족들이 한국과 한국인의 모습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알아보는 데 있다. 중국 1급 소설가이며 중국 조선족작가로서는 가장 높은 인지도와 많은 수의 책을 국내에서 출판한 허련순 작가의 두 책, 1996년 『바람꽃』과 2015년 『중국색시』를 통해 조선족들의 눈에 비친 한국과 한국인의 모습을 확인하고자 한다. 두 작품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질감으로 시작해 이질감으로'이다. 한국 사회는 한국어와는 다른 조선족의 언어와 북한과 가까웠던 사회체제로 인해 그들에게 이질감을 느끼며 '같은 민족'보다는 '외국인'으로 그들을 대한다. 둘째, '잘난 한국, 잘나지 못한 한국인'이다. 초창기 조선족들이 3D 직종과 단순 노무직 중심으로 한국 생활을 시작했기에 한국 사회는 이들을 '가난한 나라에서 온 벌러 온 이주노동자'로 인식한다. 셋째, '그들끼리만의 우리'이다. 한국인들의 '우리'에 들지 못하는 조선족들은 한국 사회의 언어폭력, 물리적인 폭력과 맞닥뜨리게 되며 혐오와 배제의 시선을 받는다. 넷째,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이다. 한·중수교 직후의 한국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인적자원으로 환영받는 동포였으나, 노동력과 생산력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들은 점차 한국 사회에서 초라한 쓴맛의 존재가 되었다.

주제어: 허련순, 조선족, 중국동포, 디아스포라, 『바람꽃』, 『중국색시』

* 한양대학교

목차

1. 서론
2. 선행연구
3. 조선족의 눈에 비친 한국, 한국인
4. 결론

1. 서론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민의 수는 현재 241만 명(출입국 통계 2019년 7월 기준)에 해당하며 재중동포인 조선족은 72만 명으로 전체 이주민 중 약 30%에 해당한다. 2014년 59만 명이었던 수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며 조선족 출신 결혼이주여성은 전체 결혼이주 중 30.8%로¹⁾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별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서비스 업계와 결혼이주여성으로 한국 사회의 중요한 양축을 이루고 있는 조선족은 1999년 8월에 시행된 『재외 동포법』에 의해 다른 재외 동포들과는 달리 불평등한 차별을 받았었다. 재외 동포의 자격을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정의함으로써 1948년 한국 정부 수립 이전에 이주한 조선족과 구소련 동포들을 출입국과 체류 상의 혜택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구(舊) 재외 동포법은 2004년 개정되었고 조선족은 법적으로 재외 동포의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아직도 개정 재외 동포법에는 차별적인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재외 동포(F-4) 비자 발급에 일본, 미국 재외 동포들은 조건 없이 발급받을 수 있지만 중국, 구소련 지역 등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그렇지 못하다. 조선족이 F-4비자를 받기 위

1)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신 국적은 1위는 중국(53.2%)이며 이중 조선족이 30.8%, 중국계가 22.4%를 차지하며 2위인 베트남은 20.8%를 차지하고 있다(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여가부).

해서는 국내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거나 국내 4년제 대학 졸업장 또는 국내 공인 국가기술 자격증 등을 갖고 있어야만 발급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조선족들은 방문취업(H-2)비자를 받는데 H-2 비자는 F-4비자에 비해 체류기간이나 일할 수 있는 곳의 제약이 심하다.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한족과는 구별된 언어와 문화, 또한 강한 민족의식을 가지고 살아왔던 조선족 동포들은 중국에서는 디아스포라들로서의 숙명적 운명과 한을 품고 살아와야 했었고 한국 사회에서는 같은 뿌리를 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포들과는 구별되는 또 다른 서러운 타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조선족들의 한국 생활은 많은 방송 매체와 언론에서 다루어져 왔지만 이는, 한국인의 눈으로 한국인의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에 불과했다.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의 큰 두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른 동포들과 달리 문화적 유사함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지만 굵직한 흉악 사건들의 배후에 조선족들이 있음이 밝혀지면서 방송을 비롯한 각종 언론 보도에서 그들을 보는 시선은 냉담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선족을 추방시켜달라는 청원이 계속 올라오고 그들을 극단적으로 묘사한 영화까지도 흥행에 성공한다. 조선족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은 단순한 차별이 아니라 ‘혐오’의 수준이다.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인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조선족들은 한국과 한국인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조선족들에 대한 불편한 시선을 한국 사회에서 온몸으로 안고 사는 그들은 어떤 시각으로 한국과 한국인을 보고 있을까? 이에 중국 1급 소설가이며 한국에서 한 대학에서 한국문학을 전공한 허련순의 작품에 주목해 본다. 그는 중국 조선족 작가로서는 가장 많은 수의 책을 국내에 출판하였으며 그만큼 높은 인지도와 인기를 가지고 있다.²⁾ 이런 인지도는 그의 작품을 분석하는 국내의 많은 연구 활동으로 나

2) 허련순의 책 『중국색시』는 2016년 세종도서 문학나눔에 선정되기도 했다.

타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본격적인 외국인의 유입이 이루어지던 1990년대 중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바람꽃』을 시작으로 다문화사회라는 용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을 만큼 본격적인 다문화사회의 진입을 목전에 둔 2015년에 발행된 『중국색시』까지 20년여 년의 시간 흐름 속에서 조선족 작가 허련순의 눈에 바친 한국 사회, 한국인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조선족이 바라보는 한국 사회와 한국인들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그 속에 나타나는 조선족들의 위치와 정체성이 어떻게 규정되어지고 어떤 변화를 겪는지를 살피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2. 선행연구

중국 조선족에 대한 연구는 1992년 한·중 수교를 기점으로 한국 사회에 물밀 듯 몰려드는 중국 노동자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되었다. 한국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첫 체계적 연구를 한 설동훈은 ‘한국 사회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외국인노동자의 유입과 적응을 중심으로 (1996)’³⁾에서 조선족을 이주노동자 범주 중의 한 부류에 넣어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보고 있으며 같은 혈통과 민족성을 강조하지 않는다. 중국 조선족에 대한 연구는 이처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연구의 한 범주로 시작되었고 그 후 1999년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률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 동포법)’을 통과 후 조선족의 동포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의 담은 연구들이 줄을 이었다(이종훈, 1999, 2001, 2002, 2003; 노영돈, 1999, 2002; 정인섭, 2002; 이진영, 2002; 박기갑, 2001)⁴⁾. 더불어 1980년대 말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농촌총각 장가보내

3) 설동훈, 『한국 사회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외국인노동자의 유입과 적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기 운동으로 중국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 유입이 시작되었고, 1992년 한·중 수교 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중국 조선족 여성들의 결혼이주로 1999년부터 중국 조선족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정현옥, 1999; 강유진, 1999; 김숙자, 1998; 신영화, 2002).⁵⁾

이런 조선족들의 한국 이주에 힘입어 중국 조선족 작가 남현, 김훈, 허련순, 장혜영, 리혜선, 리동렬, 량춘식, 금희 등이 한국과 관련된 글을 1990년대부터 발표하였고 한국에서도 출판하여 인지도를 얻는 작가는 허련순, 김재국, 장혜영, 리혜선, 금희 작가 등이다. 이 중 허련순은 한국에서 가장 많은 인지도를 가진 작가이며 한·중수교 이후의 조선족 문학의 변모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작가라는 평을 받는다.(차성연, 2010)⁶⁾ RISS4U,

4) 이종훈, 『재외 동포정책의 현황과 향후방향』, 유제건 편저, 『21세기 한국의 외교정책』, 나남, 1999, 497-512면.

이종훈, 『재외 동포정책과 재외 동포법의개선방향』, 『재외한인연구』, 11호, 2001, 165-190면.

이종훈, 『재외 동포법 개정론과 폐지론의 합리성 검토』, 정인섭 편저, 『재외 동포법』, 서울: 사람생각, 2002, 47-62면.

이종훈, 『재외 동포법의 개정 문제』, 『한일민족문제연구』, 5권 5호, 2003, 109-129면.

노영돈, 『소위 재외 동포법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논총』, 2권, 1999, 57-71면.

노영돈, 『재외 동포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47권 3호, 2002, 97-119면.

정인섭, 『재외 동포법의 문제점과 향후 대처방안』, 정인섭 편저, 『재외 동포법』, 서울: 사람생각, 2002, 13-14면.

이진영, 『한-중외교관계와 재중 동포 — 재외 동포법 헌법 불일치 결정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8권 4호, 2002, 79-113면.

박기갑, 『한국체류 중국동포의법률문제』, 『강원법학』, 2001, 제14권, 301-323면.

5) 정현옥, 『조선족 귀화여성들에 관한 연구: 유입배경, 수용환경 및 부적응에 관한 고찰』, 『정치정보연구』, 1999, 2권 3호, 103-123면.

강유진,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999, 4권 2호, 61-80면.

김숙자, 『한국남성과 중국 조선족여성과의 섭외혼인실태와 그 대책』, 『가족법연구』, 1998, 12호, 93-137면.

신영화, 『한국인 남편과 조선족 아내의 부부문제』, 『가족과 가족치료』, 2002, 10호, 1-24면.

6) 차성연, 『중국 조선족 문학에 재현된 ‘한국’과 ‘디아스포라’정체성-허련순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2010, 31호, 75-98면.

KSI KISS, DBpia를 통해 그녀의 작품을 직접 분석한 국내 연구를 살펴본 결과 22편에 달한다. 허련순은 1986년 단편소설 〈아내의 고뇌〉로 중국 문단에 등단한 후 『사내 많은 여인』, 『우주의 자궁』, 『잃어버린 밤』, 『바람꽃』, 『뼈꾸기는 울어도』,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 『중국색시』 등의 중단편, 장편 소설들을 출간했으며 인물평전 『사랑주의』와 드라마 시나리오 『칼꽃』, 『여자란 무엇입니까』, 『떠나는 사람들』, 장막극 『과부골목』을 펴내었다. 등단 후 중국조선문학 3세대문학의 대표 작가답게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해왔다.

선행연구에서는 허련순의 작품을 디아스포라와 정체성으로 분석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페미니즘 경향에 대한 분석이 그다음을 잇는다. 그 중 한홍화(2010)⁷⁾는 『바람꽃』⁸⁾이 한국을 방문하는 조선족들이 한국에서 겪는 정체성 문제를 잘 반영하였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하지만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일면만 취하고 있다는 작가의 한계를 지적하며 강진구(2009)⁹⁾도 『바람꽃』에 나타난 조선족이 자신들이 꿈꿔왔던 아버지의 고향이 자신들과 관련이 없음을, 이에 대한 책임을 한국 또는 한국인에게 전가하려고 한다고 보고 있다. 전가훈(2012)¹⁰⁾도 같은 맥락으로 『바람꽃』에서는 조선족이 한국에서 겪는 불평등, 부당치우 등의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지만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¹¹⁾에서는 중국에서 주변인으로 겪는 비극적 현실에 초점을 맞추어 허련순을 비주류 경계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차성연(2010)¹²⁾과 김미란(2015)¹³⁾의 연구는 중국이 개혁개방

7) 한홍화, 「〈바람꽃〉을 통해 본 조선족 정체성의 변이양상: 주인공 의식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2010, 38호, 193-216면.
 8) 허련순, 『바람꽃』, 범우사, 1996.
 9) 강진구, 「모국 체험이 조선족 정체성에 미친 영향 연구: 허련순의 『바람꽃』을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2009, 2권, 101-125면.
 10) 전가훈, 「허련순 소설의 주변부 의식에 대한 연구: 『바람꽃』과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석사논문, 2012.
 11) 허련순, 앞의 책(1996).
 12) 차성연, 앞의 글(2010), 75-98면.

정책과 한국과의 인적·물적 교류 이후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에 큰 변화를 끼쳤는데 허련순의 작품이 새로운 디아스포라 문학으로의 지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다. 차성연(2010)은 허련순의 『바람꽃』에서 조선족이 가지고 있던 민족 정체성의 일부였던 한국과의 거리두기를 획득함으로써 김미란(2015)은 기존의 조선족 소설이 한국인과의 갈등, 오해, 반목 속에서 조선족들의 한과 설움, 피해 의식을 나타내는 데 비해 허련순의 『중국색시』는 한국인과 조선족이 서로에 대한 정신적 갈등을 치유하고 타자에 대한 소통과 갈등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발전적 디아스포라문학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본다.

박경춘(2015)¹⁴⁾는 『바람꽃』과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을 통해 조선족들의 존재 양상과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살펴보았다. 그는 『바람꽃』과 출간 후 7년 후 쓰인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를 통해 한국 사회의 냉정함, 멸시, 한민족에 대한 소외를 비판하는 모습에서 조선족 스스로 정체성 문제에서 자아성찰 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았다. 최병우(2015)¹⁵⁾는 『바람꽃』,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 『중국색시』¹⁶⁾ 3편을 『바람꽃』 삼부작이라 칭하며 『바람꽃』이후 2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한국의 재한외국인정책의 변화에 따른 허련순의 디아스포라 정체성과 시각의 변화를 읽고자 했다. 그는 『바람꽃』에서는 중국 공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게 만드는 한국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에서는 이 정체성 혼란을 겪는 주인공이 순수한 시공간으로 유년의 기억을 더듬고 『중국색시』에서는 정체성의 갈등으로 겪게 된 파탄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사랑을 제시한다고 보았다.

13) 김미란, 『허련순의 〈중국색시〉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의 치유 양상』, 『현대소설연구』, 2015, 60호, 149-175면.

14) 박경춘, 『허련순의 소설을 통해 본 중국 조선족들의 존재양상과 '디아스포라' 정체성 : 『바람꽃』과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2016.

15) 최병우, 『허련순의 장편소설에 나타난 정체성의 변화』, 『한국문학논총』, 2015, 71집, 447-477면.

16) 허련순, 『중국색시』, 북치는 마을, 2016.

본 연구에서는 그의 많은 작품 중에서 한국에서 출판되었고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1996년 『바람꽃』, 2015년 『중국색시』 2편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허련순의 작품 중 한국을 배경으로 하는 장편 소설은 『바람꽃』,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 『중국색시』 3작품이며 이중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는 한국행을 꿈꾸며 어선으로 밀입국하는 중국인들의 배 안에서의 모습과 그들이 왜 한국으로 입국하려는지를 담은 이야기라서 그들이 한국 생활에서 겪는 한국과 한국인의 모습을 분석할 수가 없기에 분석 대상에서 배제했다.

최병우(2015)¹⁷⁾가 조선족 여성이라는 작가의 정체성에서 출발해 인간 보편적인 정체성으로 외연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 연구는 두 작품에서 조선족의 눈으로 그려진 한국, 한국인의 모습과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들과 부대끼며 겪는 등장인물들의 정체성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등단한 지 34년이 되는 중국 1급 소설작가가 20년 차이로 한국과 관련되어 집필한 위의 두 소설은 중국 조선족들이 그리는 한국 사회와 그 속에서의 조선족 위치를 살펴보기에 적절한 작품으로서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한국에서의 1999년부터 2년간 한국에서 유학 경험을 가지고 있는 조선족 출신의 작가이기에 그의 한국 경험 후에 나온 『중국색시』는 한국과 중국 두 곳의 조선족들에게 비친 한국, 한국인의 모습을 보다 사실적인 묘사로 접근했으리라 추측된다. 한·중 수교 27년이 흐르고, 2004년 재외 동포법이 개정된 지 15년이 흐른 시점에서 중국 조선족들이 한국 사회와 한국인에 대한 어떤 인식의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이 땅에서 또 하나의 소수자로서 살아가는 조선족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7) 최병우, 앞의 글(2017), 447-477면.

3. 조선족의 눈에 비친 한국, 한국인

1) 동질감으로 시작해 이질감으로

중국 조선족의 역사는 19세기 중엽부터 흉년으로 인해 비옥한 간도 지방으로 대규모의 자발적 이주로 시작되어 일제 치하의 본격적인 이주로 중국 동북부 지역의 한인 사회는 더욱 확장되었다. 1910년 한일합방으로 파산한 조선 농민과 망국노 되기를 원치 않는 조선인들이 자유의지로 이민을 왔고, 1931년부터 1945년까지는 동북에서의 일본의 식민통치를 공고히 하기 일제에 의해 강제적으로 집단이민을 왔다(강수옥, 2013).¹⁸⁾ 이 중국 조선족들은 1984년부터 친족 방문을 계기로 한국방문이 허가되었으며 88올림픽을 거치고 1992년 8월 한·중수교를 거치면서 본격적인 한국행이 시작되었다. 88년 이전까지는 북한이 한국보다 훨씬 잘 사는 줄 알다가 88올림픽이 중국 전역에 TV로 중계되면서 한국에 대한 조선족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고 90년대의 중국의 개방정책과 한국과의 수교로 한국은 조선족들에게 코리아 드림의 나라가, 자랑스러운 모국(母國)이 되었다. 55개의 소수민족 중의 하나로 중국에 살아온 그들은 한(漢)족과는 다른 문화, 언어, 풍습, 역사로 거대한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고군분투했다. 특히 1960~1970년대 문화혁명시대에는 ‘조선특무’와 ‘반혁명’ 사이에서 소수민족으로의 설움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이 컸다. 그랬던 그들이기에, 조국은 중국일지라도 한반도를 모국(母國)으로 여기며 살아온 그들이기에 한국행에 희망을 품고 한국에 가지는 막연한 첫 기대는 ‘동질감’이었을 것이다.

홍지하는 고구마를 굽는 사람꼴으로 다가갔다.

18) 강수옥, 『중국 조선족의 역사적 형성과 정체성』, 『디아스포라 연구』, 2013, 7권 1호, 92면.

“말씀 물읍시다. 이 근처에 성해장 여관이라고 있습니까?”

“저기있잖아요. 조 앞에.”

국내(연변)에서 고구마 굽는 검댕이 중국 사람같이 보이는 남자 입에선 흘러나오는 조선말은 유달리 신선하고 살가움을 안겨주었다. 동족이라는 동질감에 애뜻한 친화감을 느낀 흥지하는 까맣게 그득찼던 초조함을 서서히 몰아내면서 성해장 여관이란 간판을 향해 걸어갔다.¹⁹⁾

중국에 있을 때 그는 거지를 불쌍하다고 여겨본 적이 없었다. 돈푼이라도 쥐여 주면 그들에게 파태와 게으름을 키워준다고 거지를 동정하는 사람에 한해서도 유치하다고 비웃었다. 그랬던 그가 한국에 와서 한 푼도 쪼개어 쓰는 돈임에도 서슴지 않고 선심을 쓰고 있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다. 거의 숙명처럼 가슴에 와닿는 동질감, 그 동질감의 정체를 알 것 같았다. 천만 갈래의 뿌리가 함께 느낄 수 있는 습기나 누기 같은 것을.²⁰⁾

허련순의 『바람꽃』에서 주인공 흥지하가 처음 만나는 한국인이 군고구마 장수이다. 가히 친절하지 않은 그의 통명스러운 말에서 흥지하는 동질감을 느낀다. 중국에서는 거지에게 적선을 하지도 않고 적선하는 사람까지 비웃었지만,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한국에서 오히려 그는 거지에게 적선을 베푼다. 같은 뿌리에게서 나온 천만 갈래의 습기와 같은 동질감으로 말이다. 민족이란 일반적으로 인종, 문화, 언어, 역사, 종교가 같은 전통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인간 집단을 말한다. 한국 사회에서 이 ‘민족이라는 개념은 곧 인종이며 국가이다. 민족과 인종과 국가가 일치하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나라인 것이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하나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 라는 단일민족의 정체성을 의심 없이 당연히 가져왔다. 어쨌든 그 정체성으로 일제 치하의 압박과 한국 전쟁의 쓰라림을

19) 허련순, 앞의 책(1996), 11면.

20) 허련순, 앞의 책(1996), 56면.

이겨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단일민족의 신화는 신화일 뿐이다. 본격적인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 진입하기 전인 1985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성(姓)씨 275개 중 136개가 귀화 성씨에 해당한다²¹⁾. 이주민들에 의한 귀하는 신라, 고려, 조선시대까지 쭉 이어져 온 부정하려면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 1983)은 근대화 과정에서 민족주의가 형성되고 이 민족주의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재의 공동체가 아니라 주권을 가진 것으로 상상되는 정치 공동체 ‘민족’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²²⁾ 민족과 민족주의를 구별한 그의 이론은 과거로부터 이어진 영원에 가까운 존재로 파악되는 개념의 민족이 아닌 또 다른 민족의 개념을 제시한 것이다. 박경태(2009)²³⁾ 도 근대 국가가 문화의 동질성을 집요하게 추구했던 이유는, 역사적으로 내부 구성이 동질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실제로 한국의 ‘단일민족’이라는 용어도 일제 치하에서 통일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사상과 계급을 초월해 민족성원들을 묶을 수 있는 상징어로서 정립된 것으로 본다(정영훈, 2001)²⁴⁾. 정영훈(2001)은 한국 사회에서 이 ‘민족’의 개념이 일제 강점기를 이겨내는 민족적 금지에서 시작해서 분단과 동족상잔의 시기에 민족화합에 대한 갈망과 함께 대중화되었다고 추정한다.

단일민족이 아님에도 단일민족임을 즐기치게 강조해 온 것은 한국 사회의 내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것이지만 국민들에게 ‘단일민족’ 사상의 고취는 국민들을 ‘단일민족’ 그 이상으로 국민을 하나를 묶는 역할을 했고 아직도 많은 한국인은 이 ‘단일민족’이라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이기를 역사적 사실로 믿는다. 2007년 교과과정 개정으로 ‘배달민족’이나 ‘단일민족’

21)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 보도자료, 통계청.

22) 베네딕트 앤더슨, 『상상의 공동체』, 나남, 2004.

23) 박경태, 『인종주의』, 책 세상, 2009, 139면.

24) 정영훈, 『단일민족의식의 위기』, 『정신문화연구』, 2001, 24권 4호, 185-313면.

의 용어는 교과서에서 다 사라졌다. OECD 기준으로 전체인구 중 외국인의 비율이 5% 이상인 사회를 다문화사회라고 부르며 한국은 이런 본격적인 다문화사회의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더 이상 '단일민족' 사상의 고취는 국제화 시대에, 다문화시대에 어울리지 않기에 국가 정책상 폐기된 단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단일민족'이라는 민족의 개념으로부터 한국 사회가 하루아침에 자유스러워진 것은 아닐 테다.

허련순의 두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모두 한국행을 꿈꾸었고 한국으로 온다. 그들이 꿈꾸었던 곳은 민족의 동질성이 보장되는 한국이지 않았을까? 중국 13억 인구 중 98%를 차지하는 거대한 한족과 2%에 해당하는 55개 소수민족 중에 유일하게 발전된 경제적 모국을 가지고 있는 조선족들에게 한국은 그들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싶고 그 동질성으로 좀 더 유리하게 경제적 이점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했던 곳이 아닐까 싶다. 『바람꽃』에서 흥지하처럼 직설적으로 민족 예찬론을 펼치진 않지만 『중국색시』의 조단 또한 남자를 통해 집을 떠나는 게 급했지만 한국 결혼소개소에 등록해 놓는 것 말고는 어떤 다른 남자를 만나기 위해 노력한 적은 없다. 『중국색시』에 나타난 것처럼 인구 50만도 안 되는 연길이란 작은 변방 도시에 무려 천 단위를 웃도는 국제 혼인 소개업소가 생겨나고 등록하지 않고 사사롭게 영업하는 업소까지 합치면 그 수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p.13)인 것은 88올림픽으로 확인한 한국의 급격한 성장과 동족이라는 동질감이 한국행의 붐을 이끌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민족의 동질성이라는 환상이 깨어지고 나면 한국 사회에서 그들은 스며들지 못하고 곁도는 존재임을 인식하게 된다.

퇴근하는 회사원들의 산뜻한 모습들이 웃음을 날리며 지나간다. 저 사람들은 복을 받은 행운아일거야! 같은 혈통과 동일한 언어 그리고 자기의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며 자기의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자랑스럽고 긍지가 넘치는 일일까. 부러움과 괴리감이 빗물처럼 스며들면서

어깨춤이 꺼져 내렸다.²⁵⁾

한국 사회에 만연한 다른 피부색 인종에 대한 차별도 이런 민족에 대한 깊은 유대감 때문일 것이다. 정선주(2014)²⁶⁾는 한국 사회는 같은 조상, 같은 피부,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가졌다는 깊은 사회적 유대감이 개화 초기 한국에 도움을 많이 주었던 ‘기독교 선교사들의 역사적 영향으로 피부색깔에 따른 각각의 인종에 대한 편타지를 가지게 했다고 본다. 그는 한국 사회는 한국인의 피부 색깔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더 짙거나 검으면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계층으로 생각하며 그들을 내려다보는 경향이 있고, 상대적으로 한국인보다 흰 피부색의 인종은 우호적으로 대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인종에 대한 편타지가 같은 피부색, 같은 언어를 쓰는 한국 사회의 조선족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왜일까? 같은 조상, 같은 피부까지는 맞으나 언어, 문화면에서는 ‘같다’라는 동질감보다는 ‘차이가 난다’라는 이질감이 앞서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동질감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다. 『바람꽃』의 오십 줄 강사장은 이때까지 자식이 없어 조선족인 지혜경의 몸을 빌어 아이를 가지고자 하는 것도 이런 동질감이 작용했을 것이다.

중국 동포들은 요구도 별로 높지 않을 거고 조만간에 중국으로 돌아가면 일체 관계가 끊어져버려 앞으로 생모가 아이를 찾아다니는 시끄러운 일은 절대 없을 거라는 판단과 예견이었다.²⁷⁾

금전적 요구가 높지 않고, 뒤처리가 깔끔할 것이라는 판단과 더불어 말

25) 허련순, 앞의 책(1996), 75-76면.

26) 정선주, 『소설 『완득이』를 통해 본 한국 사회의 다문화 편타지 고찰: 지척의 이데올로기론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2014, 7권 2호, 138면.

27) 허련순, 앞의 책(1996), 171면.

이 통하고 밖에서 낳아서 데려다 키워도 피부색 측면에서 한국인과 구별 지어질만 한 유전인자가 없다는 것도 이미 강사장과 불임인 그의 아내의 계산 속에 들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족의 언어는 알게 모르게 중국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외래어는 편의상 중국어의 음차를 차용한 것이 많다.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발전된 언어는 발음, 억양, 어휘, 맥락적 의미 등의 측면에서 이질화 되었고(장은영²⁸⁾, 2011; 신경희, 양성은, 2006²⁹⁾ 이런 이질감은 비록 민족은 같더라도 같은 집단으로 인식하기 어렵게 만들어 차별과 무시의 구실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이익섭, 1994)³⁰⁾. 즉 말은 통해도 이질적인 언어가 단일민족이라는 상상의 공동체 발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중국색시』에 전체에 나타나는 조단의 말투는 “~임다.”, “~함다.”, “쌌다.”, “음다.”, 의 말끝을 사용하고 물어볼 때는 “검까?”, “있쌌까?”, “말입까?”, “모름까?” 등을 사용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는 알아도 특유의 사투리 느낌이 나는 언어로 보편적인 한국인들이 잘 쓰지는 않는 표현이다.

또 다른 부분은 문화에서도 나타난다. 100년이 넘는 동안 조선족은 남한의 문화보다는 오히려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 문화와 많은 동질감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 맞을 듯하다. 두 나라의 근대사가 다른 정치적이데올로기 하에 다른 발전을 해왔기에 이런 정치적 이념상의 차이는 역사와 북한의 인식 등에서 남한사람들과는 다를 여지가 많은 것이다(문형진, 2008)³¹⁾. 정치적 이념으로 인해 피로 물든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이기에 북한말에 더 가까운 언어를 쓰며 남한보다 북한을 더 가깝게

28) 장은영, 『한국어를 배워야 하나요?: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에 관한 다중 사례연구』, 『이중 언어학』, 2011, 47호, 139-164면.

29) 신경희, 양성은, 『국제결혼가족의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06, 44권 5호, 1-8면.

30) 이익섭, 『사회언어학』, 민음사, 1994.

31) 문형진, 『한국내 조선족 노동자들의 갈등사태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2008, 12권 1호, 131-156면.

여기는 조선족들에게 과거부터 그래왔고 미래까지로 이어질 것이라는 베네딕트 앤더슨이 말한 그 ‘상상의 공동체’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존재인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숙명적인 혈육이 얽혀 있는, 선조들의 뼈가 묻힌 잇을 수 없는 땅이긴 하지만 이곳의 주민들은 중국동포들을 이방의 타민족으로 여기면서 쌀의 누와 물에 뜬 몇 방울의 기름처럼 대했다.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만큼 그의 가슴은 아프고 쓰라렸다. 밥을 지을 때 쌀에 누를 가려버리기 마련이고 물은 기름을 떠밀어버리기 마련이다. 물은 한 방울의 기름쯤은 의식할 여백이 없을 것이지만 물속에 용해될 수 없는 한 방울의 기름은 외롭고 슬픈 것이다.³²⁾

1992년 한·중수교는 중국 공산당 정부 수립과 6·25 전쟁에 이르기까지 적대관계가 지속된 두 나라가 수교를 함으로써 조선족들에게는 발전된 모국과 인적·물적 급진적인 교류가 시작된 계기가 되었지만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88올림픽 후 늘어나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주민들 중의 하나가 조선족이었던 것이다. 단지 그들이 한국말이 통하고 우리와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 ‘민족의 개념은 아니었다. 이런 양쪽의 동질감에 대한 온도 차이로 조선족들은 모국에 대한 배신감과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끼기 시작했다. 허련순의 소설에 나타난 조선족 주인공들은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감을 안고 한국행을 선택했지만 일반 중국 동포들이 느끼는 민족 동질감에 상처를 받는다. 『바람꽃』의 홍지하가 자신의 일기를 찾을 때 다방에서 자신의 이복형으로 추정되는 이를 만날 때 ‘피가 요동치고 세포마다 희열과 감회가 팽배하였지만, 정작 이복형 홍성표는 홍지하가 내민 손을 가볍게 쥐는 듯 마는 듯하다가 금세 빼어버린다. 한국인과 조선족이 느끼는 감정의 온도 차이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32) 허련순, 앞의 책(1996), 275-276면.

2) 잘난 한국, 잘나지 못한 한국인

같은 언어 같은 뿌리를 가진 민족이라는 동질감을 큰 이점으로 꼽아 찾아온 모국에서 조선족들은 오히려 끝없는 우월감을 드러내는 한국인에게 이질감과 더 나아가 끝없이 가라앉는 자존감을 느낀다. 『바람꽃』에서 중국에서 조선족 엘리트 지식인층이었던 흥지하는 수원건설 현장에서 막 노동을 부산에서는 고깃배를 탄다. 조선족들이 현실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바람꽃』에서 『중국 색시』까지 나타나는 한국인의 우월감은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 한국에 대한 우월감일 뿐이다. 개인과 개인으로 보면 굳이 나올 것도 없는 한국인이지만 상대적으로 발전된 나라 한국 국민이라는 자긍심은 끝없는 조선족 앞잡아보기로 나타난다.

“중국에선 연애를 수수밭에서 한다면서요?”³³⁾

중국의 한약을 저질로 간주하며 사용치 않겠다는 걸 강제로 사용하라고 할 수 없는 일이고 준다음에 버리는 걸 어떤 수로 막는단 말인가. 오 두석만이 나니라 적지 않은 서울 사람들이 선물 받은 중국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슬그머니 버린다고들 했다.³⁴⁾

“무라. 이게 수박이라는기다. 엄청 시원하고 달제? 중국에는 이런 것이 없제?”(중략)

“그럼 커피도 있는기가? 커피는 없제? 커피는 없을끼구만. 이게 원래 양놈들 것이니께. 양놈들은 전쟁통에 지들도 목으야 하니께 빨리 들어온 것이여.”

33) 허련순, 앞의 책(1996), 19면.

34) 허련순, 앞의 책(1996), 181면.

외숙모는 한사코 한국에만 있고 중국에는 없는 것을 찾아내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중략)

“그래도 한국이 중국보다 살기 좋제?”³⁵⁾

연애를 수수밭에서 하느냐고 물어보는 속뜻은 미개한 나라이기에 그런 곳에서 사랑을 나누냐는 뜻이다. 나아가 중국산 제품은 다 저질이기에 중국산 한약 또한 믿지 못하므로 홍지하가 무좀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 건넌 중국산 연고를 같은 배를 탄 한국인 선원이 바다에 흘려 던져버린다.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 한국인은 매춘부이며, 고깃배 선원, 강원도 시골 노인이다. 개개인으로는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는 계층인 이들이지만 조선족을 대할 땐 정말 대한민국인이 되는 것이다. 중국색 시에게 수박이 중국에도 있다는 말에 힘이 빠진 김도균의 외숙모는 기어 이 중국에는 없고 한국에 있는 것을 찾기 위해 커피까지 들먹이고 결론을 낸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진짜 무식하더라, 커피를 왜 그렇게 마신다냐?”³⁶⁾

“중국에선 외국어를 안 배우나?”

갑자기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를 알 수 없는 홍지하는 무르춤하게 대답한다.

“왜 안 배워, 배우지.”

“건데 왜 그렇게 무식해요. 중국교포들은? 북한가수 김용씨가 금방 귀순해 넘어왔을 때 스킨로션을 몰라서 머리에 발랐다잖아요. 그때 우린 많이 웃었지. 요즘 교포 아가씨들이 그 식이더라고.”(중략)

“전번에 우리가 함께 갔던 그 빈뎃집 말이에요. 거기서 일하는 중국 교포 아가씨, 소시지 사 오려면 수세미 사 오고 냅킨 가져오려면 내복을 갖

35) 허련순, 앞의 책(2016), 442-444면.

36) 허련순, 앞의 책(1996), 49면.

고 오고 소쿠리 가져오라면 소금 단지를 가져오고 그러더라고요.”³⁷⁾

또한 영어와 외래어 부분은 탈북민이나 조선족들이 한국 생활에서 불편함으로 꼽는 부분 중의 하나이다. 영어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에서 흔히 접하기 어려웠던 물건들의 생소함은 그들에게 당연한 것이다. 한국어는 영어권 외래어 어휘를 많이 쓰고 있기에 영어를 모르면 단어를 전혀 짐작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조선족 학교는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기에 그들이 한국에서 듣는 한국어는 소리는 알아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 그들에게 한국인들은 ‘무식하다’라는 말을 한다. 커피를 후룩후룩 소리를 내며 단숨에 들이키는 모습이 미처 배우지 못한 무식함을 나타낸다고 여기고 있다. 배우지 못했다는 뜻의 ‘무식’이 커피를 마시는 법이나 소시지 냅킨, 소쿠리 단어 뜻을 아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가난한 중국에서 왔으니 당연히 이런 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이런 조선족에 대한 한국인들의 선입견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도 『중국색시』에 있다. 건설 현장에서 죽은 남편의 보험료 때문에 한국을 찾은 초라한 노파가 어렵게 찾아간 보험사에서 퇴근 시간이 10분 밖에 남지 않았으니 내일 오던지 아님 10분 안에 영어로 되어 있는 서류를 작성하라는 말을 듣는다. 이에 이 조선족 노파는 중국어로 쓰면 안 되냐, 대신 좀 써주면 안 되냐고 애원하다가 직원의 거부로 직접 서류 5장을 영어로 다 작성한다. 이 서류를 본 한국 직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어떻게... 어떻게”를 연발하며 “영... 영어를 아세요?”라고 묻는다. 초라한 행색의 조선족을 까막눈 취급한 것이다.³⁸⁾

한국 사회에서 조선족은 그들이 조선족 사회에서의 누렸던 학력과 지위에 상관없이 돈 벌러 온 이주민들에 불과하다. 그래서 한국인들보다 저

37) 허련순, 앞의 책(1996), 182-183면.

38) 허련순, 앞의 책(2016), 485-489면.

렴한 비용으로 한국인들이 꺼리는 3D직종 일을 로봇처럼 해주면 되는 사람들이다. 조선족 엘리트 작가 홍지하는 한국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한 신문사에 ‘동족을 박대하는 민족’이라는 글을 쓸 정도로 지적 능력이 뛰어난지만 한국에서 그는 부르면 묻지 말고 예! 할 것을 강요받는 ‘미스터 흥’ 일뿐인 것이다.

수하 사람한테 절대적인 복종과 공손을 바라는 한국 사장들 앞에서 ‘아니오’나 ‘왜요가 필요없이 단마디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일할 줄 아는 로봇이면 족한 것이었다. 입이 많이 달린 로봇이나 자존심 강한 로봇은 더욱 불필요한 존재로 역증을 내고 있었다.³⁹⁾

수원 건설 현장에서 홍지하는 신역의 고달픔보다 심려의 시달림을 견디기 어려웠다. 매일 매시 깨어지고 부서져나가는 인격과 자존의 아픔 때문에 힘겨웁게 버티다가 종내는 강사장과 한바탕 버성기고 서울을 떠나 부산 고깃배에 올랐다.⁴⁰⁾

오매불망 한국을 그리워하던 아버지의 골회함을 들고 찾아온 한국이지만 가족이라 추정되는 사람들과 그가 만나는 한국인들에 의해 조선족이라는 홍지하의 자존감은 많은 상처를 받는다. 돈이면 뭐든 되는, 모든 곳을 뒤엎는 곳 한국에서 조선족은 철저한 경제원리에 입각한 단순한 노동력인 것이다. 돈으로 노동력만 사는 게 아니라 자식도 목숨도 부인이 될 사람도 산다. 홍지하의 둘도 없는 친구 최인규는 고공 작업을 하다 낙상했지만 본인의 불찰로 일어난 사고이기에 회사로부터 치료비도 받지 못하고 모아둔 돈을 병원비에 다 날린다. 최인규의 처(妻) 지혜경은 이런

39) 허련순, 앞의 책(1996), 151면.

40) 허련순, 앞의 책(1996), 179면.

남편을 살리기 위해 강사장에게 돈 몇 백을 받고 아이를 낳아주기로 한다. 『중국색시』에서 김도균은 한 쪽 다리가 없는 불구자임에도 이를 숨기고 한국으로 오길 희망하는 50명이 넘는 조선족 여성들과 맞선을 보며 그 여성들 중에서 미모로 여성을 고른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는다. 한국으로 시집으로 오기를 원하는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그야말로 한국에서도 보기 드문 미모였다. 잘 다듬지 않아서 서툴렀지만 아름다웠다.

‘이런 멋에 다들 중국에 와서 국제결혼을 하는 거구나.’ 남자는 몰래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⁴¹⁾

“단이씨는 왜 한국 사람한테 시집가려고 하세요? 의도가 뭐죠?”⁴²⁾

“혹시 결혼을 빙자하여 돈벌이를 하러 온 것은 아닌가요?”⁴³⁾

이런 잘사는 기회의 땅, 모국에 대한 꿈은 있지만 한국에 와 한국인들과 부대끼며 한국인들이 가진 잘난 척을 몸으로 겪은 조선족들은 잘나지 않은 한국인들 향해 차가운 시선을 쏟아 붓는다.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는 법 어디 있어?…… 중국 동포들도 사람이다…… 너와 똑 같은 단군의 후손이란 말이다…… 한국이 잘살면 어째? …… 한국이 부자면 네놈도 부자야? ……뭐가 잘났다고……남을 무시하는 거야…… 그래, 잘난 놈 못난 놈한테 한번 맞아봐!……”⁴⁴⁾

41) 허련순, 앞의 책(2016), 55면.

42) 허련순, 앞의 책(2016), 79면.

43) 허련순, 앞의 책(2016), 291면.

44) 허련순, 앞의 책(1996), 191면.

“(중략) 대한민국이 잘나면 제가 잘났습니까? 집도 없이 사는 신세에 중국이 못산다고 깔보며 뽕뽕 큰소리치구 돌아다니는 사람 기수부집데다.”⁴⁵⁾

앞에서 다룬 것처럼 한국인들은 다른 인종 전체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특정 인종, 특정 피부색깔에 따라 선별적으로 인종차별이 나타난다. 중국 조선족의 경우는 같은 피부색, 같은 말씨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북한말을 닮은 억양과 발성 등이 동질감보다는 이질감을 느끼게 했고 한·중수교 직후 중국의 경제적 지위가 한국보다 낮았고, 한국에 진출했던 초창기 조선족들이 3D직종과 단순 노무직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에서 일자리를 찾았기에 그들은 동남아, 서남아 출신 이주노동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3D현장에서, 식당에서, 요양원 등에서 마주치는 조선족은 자연스럽게 가난한 나라에서 돈을 벌러 온 이주노동자 층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그들의 활동 범위에서 부딪히는 한국인들은 잘난 나라의 잘나지 못한 한국인의 모습이 많았던 것이다.

한국 사회가 이주민들에게 가지는 다문화판타지는 특정 인종, 특정 피부 색깔뿐만 아니라 출신국의 경제 수준까지 염두에 둔 차별적인 인식인 것이다. 이런 차별적인 인식은 2004년 「재외 동포법」이 시행되기 전 재외 동포들에 대한 지위에도 나타난다. 중국 조선족과 구소련 동포들에 대해 동포의 위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구(舊) 재외 동포법에 대한 중국 조선족들의 반응은 “잘 사는 나라 동포만 동포냐! 우리도 ‘동포’다!”였다. 사는 곳에 따라 같은 동포를 구별하는 명백한 차별 규정인 것이다.⁴⁶⁾

출신국에 따른 차별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도 똑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같은 피부색을 가졌지만 다른 언어를 쓰는 일본 결혼이주여성들은 동남

45) 허련순, 앞의 책(1996), 258면.

46) 한겨레21, 「내게 한국인이냐고 묻지 말라」, 2007년 5월 03일.

<http://legacy.h21.hani.co.kr/section-021003000/2007/05/021003000200705030658053.html>

아 출신들과 조선족 출신들이 느끼는 한국 사회의 인종에 따른 차별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한국 사회에서의 일본이라는 나라는 한국보다 경제적 우위에 있는 나라이기에 이들에 대해서는 다문화 판타지에 기한 인종적 차별은 가해지지는 않기 때문이다(다만 한일관계의 불편한 역사로 인한 또 다른 차별이 있을 뿐이다). 이런 이유로 일본 결혼이주여성들은 스스로도 자신들을 동남아 출신 결혼이주여성들과 구별 짓는 성향을 보이며 (이은아, 2015) 자신들의 모국이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앞선 나라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정선주, 2018b).⁴⁷⁾

3) 그들끼리만의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소유격은 '내 OO'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OO'라는 표현이 훨씬 자연스럽다. 혼자서는 해낼 수 없는 과거 노동집약적인 쌀농사 문화와 농경 공동체의 역사가 만들어 내었을 '우리'라는 말은 '나'보다는 훨씬 포용력 있고 더불어 같이 산다는 뜻이 있는 정겨운 단어이다. 그러나 이 '우리'는 우리를 벗어나면 '우리끼리만'이라는 배타성(排他性) 또한 품고 있는 단어이다. '우리' 안에서는 우리는 이타적이지만 우리를 벗어나면 이기적인 우리만 챙기기기에 빠질 우려도 있는 것이다. 동질감의 환상에서 벗어난 조선족들은 단지 같지 않다는 이질감을 느끼는 것을 넘어 이 '우리'에 들지 못하는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한국 사회의 언어폭력, 물리적인 폭력에 맞닥뜨리게 된다.

“개새끼…… 강제 출국시킬 거야…… 불법체류 하는 주제에…… 사람
까지 때려……”⁴⁸⁾

47) 정선주, 『일본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족생활 갈등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결혼 동기별 차이를 중심으로』, 『디아스포라연구』, 2018, 12권 2호, 189면.

48) 허련순, 앞의 책(1996), 190면.

생계를 위해 고깃배를 탄 조선족 엘리트 흥지하는 자신의 일기를 몰래 읽고 있던 오두석과 싸움이 붙는다. 앞치락뒤치락 싸움에서 불리해진 오두석이 불쑥 내뱉는다. “불법체류하는 주제에” 한국인을 치고 니가 무사할 것 같냐는 것이다. 너희들과 우리는 다른 종류의 사람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불법체류자’라는 단어는 사람이 불법이라는 뜻을 가진 모순된 단어다. 사람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불법이 될 수 있을까? 불법이란 수식을 행위가 아닌 사람에게 붙일 수는 없는 것이다,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하는 행동에 불법이라는 표현을 붙이는 게 맞다. ‘불법 촬영’, ‘불법 주정차’, ‘불법 어업’ 등. 그러나 한국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 출입국 관련 법률에 이 단어를 법률용어로 쓰고 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9조 제1항에서 법무부 장관의 업무에 관해 ‘재한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 및 제15조에 따른 귀화자에 관한 실태 조사’로 표기되어 있다. ‘우리’를 중요시해 온 지리적 역사적 환경의 결과가 ‘우리가 아닌 범주에 든 사람들에게는 사람 자체에 불법이라는 단어를 붙일 정도로 이주민에 대한 인권 감수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어디 보자, 중국색시가 얼마나 예쁜가?”

“외숙모, 중국색시가 뭐예요.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야가 무슨 소리를 하노? 중국색시를 중국색시라고 하지 그럼 뭐라카노?”

“그냥 도균아 색시라고 해도 되고 새색시라고 해도 될 것을 굳이 중국색시라고 확인을 할 것은 없잖습니까?”(중략)

남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듯 민감하게 주위를 둘러본다. 단이도 덩달아 주위를 살피게 되었다. 중국에서 왔으니 중국색시라고 해도 마땅하겠지만 이곳에서 듣는 중국색시란 이름은 거슬렸다. 꼭 차별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중략)

외숙모가 단이를 중국색시라고 떠들 때마다 남자는 불편한 기색이 확

연했다.(중략)

김도균에게 이 결혼이 부끄러움인 듯 했다. 경석이는 도균이 한국 사람으로서 중국여자에게 장가를 가는 것을 감추고 싶어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결혼식을 서약만 하는 수순에서 급 마무리 했던 모양이었다.⁴⁹⁾

“사실 중국색시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한국에서 살아도 한국 사람일 수는 없구나 하는 서운함이 들어요. 그곳에서 살면서 그곳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위축되는 일인지 모르실 겠다.”(중략)

“이왕 『중국색시』란 타이틀로 사진 전시회를 준비했다면 화사한 느낌보다는 ‘중국색시’가 느끼는 소외감이나 슬픔마저도 작품에서 들어낼 수 있다면 좋겠습다.”⁵⁰⁾

“그게 무엇일까요? 저도 아주머니를 보자마자 중국 사람인 것을 알아챘습다.”

“겉도는 듯한 막연한 표정이라던가, 어렴풋한 두려움과 희망이 적당히 어우러진 묘한 분위기, 뭐 이런 거 아니겠어?”⁵¹⁾

김도균은 중국에서 50여 명의 여성들과 맞선을 본 후 15살 아래의 조단을 선택해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하객이라고는 외숙모와 친구 경석이가 전부인 결혼식이다. 이날 외숙모는 조선족 조단을 ‘중국색시’라고 계속 부르고 김도균은 그런 외숙모가 자꾸 거슬린다.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여성의 출신 지명을 따서 택호를 붙이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현재에는 그런 호칭을 붙이는 게 오히려 어색한 일이다. 그럼에도 굳이 ‘중국색시’라고 부르는 것은 중국색시가 한국색시보다 외모가 더 뛰어나

49) 허련순, 앞의 책(2016), 199-201면.

50) 허련순, 앞의 책(2016), 478면.

51) 허련순, 앞의 책(2016), 484면.

서라기보다는 그녀의 출신 지역이 한국이 아닌 중국 출신임을 강조하는 뜻이다. 김도균 또한 뛰어난 미모를 지닌 조단을 만나 행복하지만 그녀가 중국 조선족 출신임을 주위에 알리는 것이 싫다. 그런 불편함으로 주위를 살핀다. 그의 그런 기분이 단에게도 전달된다. 한국에 갓 도착한 단이도 자신을 부르는 ‘중국색시’라는 단어에서 김도균이 주위를 살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왠지 차별의 뜻이 담긴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다. 이런 김도균의 불편함을 친구 경석이 읽는다.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인과 결혼하지 못하고 중국인과 결혼하는 자신의 처지가, 그 원인으로 추측되는 그의 장애가 부끄러워지는 것이다. 이런 친구를 바라보는 경석이 한마디 한다.

“솔직히 입마, 너한테는 과분한 색시아? 잘해! 안 그러면 콧, 빼앗기는 수도 있으니까.”⁵²⁾

친구의 결혼식에서 과분한 아내이니 잘하고 살아라, 라는 말은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잘하지 못하면 아내를 뺏길 수도 있다는 표현은 낯설다. 중국 조선족 출신이라는 신부가 얼마나 가벼운 존재이면 뺏고 뺏길 수 있는 것일까? 외숙모가 했던 ‘중국색시’라는 말보다 친구 경석이 했던 “빼앗기는 수 있다”라는 말이 조선족 여성들을 한국 사회가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적나라하게 나타낸다. 조선족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에게만 한정되는 표현이 아닐 것이다.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덜 발전된 나라의 동남아 출신 결혼이주여성들과 한국 결혼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은 남자들 간에 매매혼에 가까운 국제결혼문화가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을 어떻게 보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가 될 수 없는 그들이었다.

“감히 네가 날 괴물 취급을 해? 더러운 짱깨인 주제에? 어디 괴물한테

52) 허련순, 앞의 책(2016), 201면.

당하는 심정이 얼마나 처참하고 슬픈지 내가 그 맛을 보여줄게.”

‘더러운 짱깨’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단이는 이미 강을 건넌 느낌이 들었다. 이 사람과는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눈이 따갑고 무릎이 후들거렸다. 어머니를 ‘꼬리뽕쯔’라고 하며 목을 놓이던 아버지의 혼이 살아 돌아온 듯싶었다.⁵³⁾

남편의 장애를 모르고 결혼을 한 단이는 첫날밤에 의족을 벗는 남편의 나신(裸身)을 보며 기겁을 하며 그를 밀쳐낸다. 단이로부터 치욕과 굴욕을 당했다는 분노는 김도균의 이성을 잃게 하고 그녀를 향한 원색적인 말을 쏟아낸다. 중국 사회에서 조선족들은 ‘꼬리뽕쯔’란 말로 비하되곤 한다. 고려년들, 고려놈들을 뜻하는 조상을 욕하는 말인 ‘꼬리뽕쯔’를 중국에서 들곤 하던 조선족들이 조상의 땅인 한국에 와서도 ‘짱깨’라는 말을 듣는다. 결혼을 한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을 경멸적으로 부르는 말인 ‘짱깨’란 말을 독설처럼 퍼붓는 김도균은 조선족 단이와 자신은 다른 사람임을 구별 짓는다. 비록 다리 장애로 중국 조선족과 결혼했지만 정상인인 15살 어린 단이는 ‘~주제에’라는 말을 듣는 보잘것없는 타자(他者)인 것이다. 이런 구별 짓기는 경석과 단이와의 관계를 의심한 경석의 처에게서도 발현된다.

“돈 벌려 왔으면 곱게 일어나 할 것이지 주제도 모르고 어디 와서 함부로 남의 남자를 꼬셔? … 여기는 한국이야! 그렇게 함부로 몸을 놀리겠거든 너의 나라로 가서 굴러.”(중략)

“네년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경석씨 등을 쳐 먹고 사는 것을 내가 다 알아! 한국 남자 등골을 빼먹으니 좋다? 재밌다? 조선족 주제에 주제도 모르고 어디 와서 까불어!”

“조선족 조선족 하지 마세요! 조선족은 사람이 아님까?”

53) 허련순, 앞의 책(2016), 211-212면.

단이가 머리채를 잡힌 채 끌려가면서 소리 질렀다.

“그럼, 떼놈이라고 부를까? 그게 좋겠다. 중국에서 왔으니 짱개 아닌 떼놈이지.”

“그렇게 부르기 소원이라면 그러시던가.”

“그래 실컷 불러줄게. 이 짱개 같보년아!”⁵⁴⁾

남의 남자를 꼬셨다는 경석 처의 악다구니는 “중국에서 돈이나 벌러 온 조선족 주제에”, “주제도 모르고”에 방점을 찍는다. 조선족이 어디 감히 내 남편을… 이란 말이다. 남편의 정부(情婦)로 추측되는 여성에게 좋은 말이 나갈 리가 만무하지만 단이가 조선족 출신이기에 경석의 처는 ‘짱개’, ‘떼놈’이란 표현을 써가며 그녀가 하찮은 존재임을 강조한다. 하찮은 존재이기에 결정적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추측만으로 친구의 부인이기도 한 단이에게 ‘짱개 같보년’ 취급을 한다. 중국에서는 ‘꼬리빵즈’ 한국에서는 ‘짱개’로 구별되어지는 조선족들의 정체성 혼란 장면이다. 중국에서의 조선족은 중국의 국민이면서 동시에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기 위해 역설적으로 소수민족적 정체성인 ‘조선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차성연, 2010)⁵⁵⁾하는 데서 오는 정체성 혼란이라면 한국에서의 정체성 혼란은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아니라 잠재적 범죄 집단을 바라보는 혐오와 소외의 표시이다. 이에 한국에 들어온 조선족들은 ‘조선족’이라는 호칭이 중국과 전혀 다른 맥락에서 사용된다는 것에 충격을 느끼게 되며(신정아, 한희정, 2016)⁵⁶⁾한국 사회의 ‘우리’의 벽이 얼마나 높은 가를 실감하게 되는 것이다.

54) 허련순, 앞의 책(2016), 492-494면.

55) 차성연, 앞의 글(2010), 75-98면.

56) 신정아, 한희정, 『한국 사회에서 조선족으로 살아가기 : 동포모니터링단 <강강술래> 활동 및 단원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소통학보』, 2016, 15권 3호, 255면.

4)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甘呑苦吐). 누구나 이익을 좇으며 손해가 되는 일을 자초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에 사는 조선족들은 한국인들에게 이런 감탄고 토식의 비애감을 훨씬 더 느끼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민족의 동질성이란 기대에 대한 실망 때문일 것이다. 한·중수교 직후의 한국 사회에서의 조선족 담론은 현재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다. ‘한국 사회에 필요한 존재로서의 동포’, ‘한민족의 뿌리 찾기’, ‘가난하지만 순박한 동포’ 등으로 불리며 당시 한국 사회에서 인력이 부족한 탄광, 원양어선, 돌봄 노동 등 3D 직종에서 환영받는 동포 노동력이었으며 농촌 총각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언어가 통하는 결혼대상자들이었다(김수미, 2011).⁵⁷⁾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초기 조선족들의 정착이 3D 직종에 집중이 되어 동포보다는 그저 이주노동자들의 한 부류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일으키는 범죄 문제와 조선족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 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가정이탈 이야기는 그들을 동포보다는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에 불과하게 만들었다. 한국 사회에서 필요해서 반기고 삼켰던 동포가 쓴맛 잔뜩 머금은 이주민이 된 것이다.

“우리엔겐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최인규 씨는 우리 회사의 정식 직원이 아니고 사회 보험도 없다고요”(중략)

“이봐요, 한 가지만 똑똑히 말해둬시다. 최인규 씨 불법체류자란 말이요. 내 한마디면 치료비는커녕 당장 강제 출국이라고요, 강제 출국!”

홍지하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날아온 폭탄에 얻어맞은 듯 일순 정신이 비칠거렸다. 그러나 불법체류란 조목으로 자신의 그 인면수심을 포장하

57) 김수미, 『대상화와 문제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 뉴스 보도 연구』, 한국방송학회 편저, 『한국 사회 미디어와 소수자 문화정치』,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144-185면.

고 있는 아비한 가면구를 발기발기 찢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⁵⁸⁾

고공 작업을 하다가 낙상을 입은 친구 최인규를 대신해 회사를 찾아간 흥지하는 회사로부터 치료비는커녕 불법체류자로 강제출국 시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순간 비틀거린다. 처음에는 치료비를 대어줄 듯싶던 회사는 최인규의 불찰로 일어난 사고이기에 책임을 회피한다. 회사는 최인규가 조선족이며 불법체류자를 구실로 온몸이 망가지는 부상을 당했음에도 모르는 척을 하는 것이다. 공사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 저렴한 조선족은 필요하지만 다친 조선족을 위해 치료를 하고 보호를 하고 싶진 않은 것이다. 이미 달지 않은 쓴맛인 것이다.

“그 시작이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렵겠지만…… 이제라도 유산을 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중략)

“내 탓은 아니잖아……”⁵⁹⁾

아이가 없는 강사장은 조선족인 지혜경과 씨반이 계약을 한다. 지혜경은 계약금 4백만 원과 아이를 낳고 나서 더 받기로 한 몇 백의 돈으로 다친 남편 최인규의 치료비를 쓸 요량이다. 그러나 결핵에 걸린 것을 안 그녀는 태중(胎中)의 아이 건강을 위해 결핵약도 안 먹고 버티지만 강사장의 마음은 이미 그녀와 태중의 아이를 떠났다. 그토록 원했던 아이였지만 지혜경이 결핵이라고 판명 나는 순간 아이에게 맘을 접는다. 물론 모체로부터 결핵균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높고 위험성도 높지만 단 한 번도 ‘아이가 태어난 후의 치료’를 생각도 언급도 하지 않는다. 약속은 무효지만 핏줄은 무효일 수 없다는 지혜경의 논리에 우생학적인 이유를 거들먹이

58) 허련순, 앞의 책(1996), 94-95면.

59) 허련순, 앞의 책(1996), 172-173면.

며 지워버릴 것을 종용한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오열하는 지혜경을 안으며 다른 상상을 한다.

그녀의 물결치는 어깨를 부여안고 강사장은 윤미연을 떠올렸다. 그녀라면 얼마나 좋을까. 젊고, 예쁘고, 건강하고……그런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꼭 예쁘고 건강할 텐데…⁶⁰⁾

더 이상 달지 않은 지혜경을 대신해 새롭게 나타난 젊은 조선족 여인인 윤미연을 새로운 씨받이로 떠올리는 것이다. 강사장에게 지혜경도 한 때는 젊고 예쁘고 건강하여 단맛이었지만 결핵임을 통보받는 순간 쓰디쓴 맛으로 변한다. 그리고 그녀가 쓴 맛이 된 순간 더 젊고 예쁘고 건강한 윤미연을 떠올리며 지속적으로 그녀에게 접근한다. 비단 『바람꽃』에서의 ‘씨받이’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노동이주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인 한국은 현행 고용허가제에서 40세 이하의 외국인노동자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다. 사용자가 재고용을 원할 경우 1년 10개월 연장이 가능해 최장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4년 10개월이다. 5년이 지날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기에 정주(定住)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말 그대로 젊고, 건강한 노동자만을 받아 그들의 한창나이 때의 육체적 노동력을 제공 받고 다시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내겠다는 것이다. 2009년 국제엠네스티는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현황에서 한국의 이주노동자를 ‘일회용 노동자’라고 표현을 했다. 한번 쓰고 쓸모없어지면 가차 없이 버리는 종이컵의 수명에 비유한 것이다. 한국 사회의 경제성장의 뒷면에는 이 단맛을 바쳐가며 일한 이들의 노고가 있었고 지금도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경제 시스템은 계속 돌고 있다.

60) 허련순, 앞의 책(1996), 175면.

지혜경은 괴롭게 눈물을 흘렸다. 상대를 눈꼽만큼도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욕정만 만족시키려는 섹스는 섹스가 아니라 하나의 폭행이었다. 폭행을 고문처럼 받으면서 그녀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지만 장마비처럼 오래오래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중략)

강사장은 끝이 없었다. 마지막 한풀이 힘이 소진해버릴 때까지 철저히 까무르고 나서야 혜경이를 드디어 풀어주었다. 그녀는 모래와 자갈에 씻기고 부대껴 불품없이 된 익사체마냥 늘어졌다.⁶¹⁾

지혜경과 강사장이 씨받이 계약을 하고 나서 나누는 모텔의 정사(情事) 장면에서 상대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한쪽만의 욕정을 채우는 모습을 그려낸다. 마지막 힘이 소진할 때까지 철저히 쓰다가 소용 가치가 없을 때 매정하게 밟는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그려낸 듯하다.

“진 결혼할 거예요.”

합사장을 만난 고애지는 서투르나마 서울말을 본따고 있었다.

“누구하구?”

“사장님하구요.”

“나하구?”

화뜰 놀란 합사장은 침대에서 벌떡 몸을 일으켰다. 느닷없이 나타나 맡겨놓은 자기 물건을 찾는 듯한 그녀의 그 뻘뻘함이 눈꼴사나웠다.⁶²⁾

1996년에 출판된 『바람꽃』에서 나온 한국인들은 감탄고토(甘呑苦吐)식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인물 강사장을 비롯해, 홍지하가 친구를 대신해 감옥에 가 있는 동안 자신의 아내와 바람이 난 합사장 또한 그러한 인물이다. 처자가 있지만 결혼을 빙자해 고애지의 맘을 흔들었던 합사장은 고애지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화들짝 놀란다. 이 일로 남편 홍

61) 허련순, 앞의 책(1996), 90면.

62) 허련순, 앞의 책(1996), 305면.

지하에게 버림까지 받았던 고애자는 마지막 방파제가 무너지는 아득함을 느낀다. 그러나 함사장은 돈 안 드는 밀천 대준 건데, 한강에 배 지나간 자리인데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며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다. 이외에도 『바람꽃』의 이복형 홍성표, 합숙소 여주인, 중국 색시의 마사장 등은 더 이상 달지 않은 쓴맛인 중국 조선족들에게 한국인은 아이를 유산시킬 것을, 그냥 성(性)적으로 즐길 것만을, 자신의 형제가 아니니 찾지 말 것을, 다른 장소로 떠날 것을, 더 젊은 조선족 여성을 찾는 게 당연하다는 한국인들이 조선족들의 이해를 바란다.

그러나 허련순은 또 다른 한국인의 모습도 『바람꽃』에서 묘사하고 있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큰 비중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작업 현장에서 크게 다친 조선족 최인규가 병원비가 떨어지자 열흘간 당직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유격전처럼 그의 침대를 옮겨 다니며 무료 치료를 받게 해준다. 이렇게 해서라도 최인규에게 “버티는 데까지 버티자”라고 이야기한다. 또한, 홍지하랑 같은 배를 오두석은 홍지하를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끈질기게 괴롭히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홍지하랑 배 위에서 사투에 가까운 싸움을 벌인 후 홍지하랑 호형호제를 하게 된다. 그런 그가 밤거리에서 중국 조선족 여성이 위협에 처한 걸 알아차리고 기꺼이 도움을 준다. 아마 많은 한국인의 조선족에 대한 선긋기로 차별과 상처를 받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들에게 기꺼이 두 손을 내민 한국의 모습 또한 있음을 나타내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은 『중국색시』에서 좀 더 발전된다. 감탄고토식의 한국인이 아닌 조선족을 한국 사회가 인식하는 딱 그 정도의 높이로 조선족을 보는 한국인들이 대부분 등장한다. 장애를 숨기고 15살이나 어린 단이와 결혼한 김도균, 중국이라는 나라를 열등한 나라로 보는 김도균의 외숙모, 친구 아내를 모델로 ‘중국색시’라는 타이틀을 걸고 사진전을 여는 김도균의 친구 경석. 오히려 같은 조선족인 화연과 티켓 다방 여사장 등의 인물이 감탄고토까지는 아니더라도 단이에게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되며 반면 단

이라는 존재를 인정한 후 그녀를 챙기는 한국인의 모습이 많이 그려진다. 김도균의 행방이 불분명한 상태에서도 친구의 아내를 챙기는 경석과 단이를 거뒀다는 김도균의 외숙모, 그리고 조선족 아내를 찾아 중국으로 온 김도균. 무엇보다도 김도균의 변화가 눈에 띈다.

15살이나 어린 나이의 눈에 띄는 미모를 가진 단이와 결혼한 김도균이었다. 자신의 장애로 인해 조선족 여성과 결혼하고 비뚤어진 열등감으로 사는 그이지만 5년 만에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단이와의 조우는 그의 변화를 단편적으로 보여 준다. 서로가 서로의 사소한 몸짓과 습관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음을 확인하며 서로 자신들이 아파 자기의 상처에 몰두하느라 다른 사람의 상처를 들여다보지 못했음을 공감한다.⁶³⁾ 동족과 동족으로서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으로서 나누는 교감과 공감을 『바람꽃』에서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면 20년이 지나 출판된 『중국색시』에서는 그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확인했다고 볼 수 있겠다. 두 책의 간격 20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조선족을 보는 큰 시각의 차이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작가 허련순은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중국색시』의 에필로그에 중국으로 단이를 찾아간 김도균을 그려내고 둘 사이에 아이가 있음을 그려낸다. 디아스포라로서 겪는 이산의 아픔과 차별을 인간의 본질이라는 더 큰 테두리 안에서 승화시키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로 보이며 어쩔 이주민 25만 명을 맞는 한국 사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점에 대해 사회적 숙제를 남겨준 듯하다.

4. 결론

중국 1급 소설작가이며 한국에서의 유학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63) 허련순, 앞의 책(2016), 581면.

가장 많은 저변을 확보한 허련순 작가의 20년 차이가 나는 두 작품 『바람꽃』(1996)과 『중국색시』(2015)를 통해 조선족들의 눈에 비친 한국과 한국인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동질감으로 시작해 이질감으로’이다. 88올림픽을 계기로 한국 사회의 발전상이 중국 전역에 방송되면서 한·중수교 후 조선족들은 자신들이 모국(母國)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으로 코리아드림을 꿈꾸며 온다. 같은 조상을 가졌고 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이라는 동질감이 한국행을 보다 쉽게 선택하게 만든다. 그러나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단일민족’의 이데올로기는 말은 통해도 조선족이 가지고 있는 발음, 억양, 어휘, 맥락적 의미 등 한국어와는 많은 괴리(乖離)로 나타난다. 이 언어적 괴리는 민족적 동질성이 아닌 우린 같은 민족이었으나 이제 더 이상은 아니다, 라는 이질감을 확인시켜준다. 이런 언어적 이질감과 더불어 조선족들이 정치, 경제, 역사적으로 한국보다는 북한과 더 가깝고 유사한 문화를 가졌다는 정치적 이념의 선긋기로 그들은 한국 사회에서 같은 민족이라는 ‘상상의 공동체’로 인정받지 못하며 이런 이질감을 조선족들은 고스란히 몸으로 체득하게 된다.

둘째, ‘잘난 한국, 잘나지 못한 한국인’이다. 한국 사회는 특정 인종, 특정 피부색에 대해 선별적 차별이 이루어지는 나라인데 같은 인종, 같은 피부색을 가진 조선족들이지만 첫 번째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 말을 닮은 억양과 발성 등이 동질감보다는 이질감을 갖게 했고 또한, 한·중수교 초창기 한국보다 경제 수준이 낮은 중국에서 입국한 조선족들이 3D 직종과 단순 노무직을 중심으로 한국 생활을 시작했기에 산업 현장에서, 식당에서, 요양원 등에서 마주치는 조선족은 자연스럽게 가난한 나라에서 돈을 벌러 온 이주노동자 층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런 인식은 잘사는 나라 한국의 잘나지 못한 개개 한국인이 끝없이 조선족 앞잡아보는 모습으로 두 책에서 나타나고 있다.

셋째, ‘그들끼리만의 우리’이다. 한국 사회에서의 ‘우리’는 노동집약적인

농경 공동체 문화의 산물이며 나보다는 공동체를 중시여기는 이타적인 의미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우리’라는 단어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 우리를 벗어나면 ‘우리끼리만’이라는 배타성(排他性)을 품는다. 허련순의 두 작품에서 동질감의 환상에 벗어난 조선족들은 단지 같지 않다는 이질감을 느끼는 것을 넘어 이 ‘우리’에 들지 못하는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한국 사회의 언어폭력, 물리적인 폭력과 맞닥뜨리게 된다. 중국에서 중국 국민이면서 조선 민족으로서 사는 정체성을 혼란을 겪는다면 한국에서는 ‘우리’ 안에 들지 못하는 조선족들이 잠재적 범죄 집단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혐오와 배제의 시선을 받는 것이다.

넷째,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이다. 한·중수교 직후의 조선족은 한국 사회에서 꼭 필요한 존재로서 환영받는 동포였다. 한국 사회의 인력문제와 농촌 총각들의 장가문제를 해결해 줄 언어가 통하는 고마운 노동력과 결혼대상자들이었다. 단맛이 철철 넘치던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일으키는 범죄 문제와 조선족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 가정생활 부적응 모습은 그들을 보는 시선을 단맛보다는 쓴맛으로 돌려놓았다. 노동이주를 허락하지 않고 최대 4년 10개월의 체류 기간을 정해놓은 한국의 이주노동정책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감탄고토(甘呑苦吐)식 시스템이라 조선족들의 노동력에, 생산력에 문제가 생기면 일회용 종이컵으로 생각하고 쉽게 그들을 저버린다. 동포라는 동질감을 안고 한국행의 꿈을 키웠던 조선족이기에 이런 대우는 한국 사회에 더 큰 비애감을 느끼게 만든다.

한국 사회는 허련순의 두 작품 간의 기간인 이 20년 동안 많은 다문화 정책을 세웠고 시행착오를 거듭해왔다. 값싼 노동력 수급과 부계 중심의 가족 문화를 잇기 급급해 국가적 준비 없이 시작한 이주민들의 입국 정책은 이주민들에 대한 실질적 차별, 소외와 배제, 한국 국민들의 차별적 시선 등을 양산했다. 인구학적으로 봤을 때 한국 사회는 유래가 없을 빠른 속도로 다인종 사회, 다문화사회로 가고 있지만 그에 따르는 국가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정비되지 못했고 아직도 그 과정에 있기 때문일 것

이다. 중국 조선족은 인종적으로는 외모로는 한국의 선주민과 아무런 구별이 되지 않지만 그들을 우리 민족으로 볼 것인가, 중국 사람으로 볼 것인가 하는 질문에 두 책에서 나타난 한국 사회와 한국인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한 국가가 단일민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한민족의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한국 사회의 주류를 지배하고 있지만 그들은 결코 우리의 ‘한민족’에 들 수 없는 주변인, 경계인일 뿐인 것으로 묘사된다. 이처럼 조선족에게서 정체성은 늘 의문의 대상이다.

허련순의 작품 속에서 조선족은 중국에서 막연하게 가졌던 자신들의 이중적 정체성을 한국에서 한국인들과의 부대낌으로 중국 국민임을 확인하게 된다. 한국에서 그들은 한민족이었지만 더는 한민족이 아닌 것을, 앞으로도 한민족으로 될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는 이주민일 뿐인 그들이었다. 그래서 차별받고, 구별되어지고, 한국 사람들의 잘 나지 못한 언어적 폭력, 폭력에 가까운 시선에 노출되어 산다. 그들은 한국 사회와 한국인들의 냉정한 선긋기에 대한 반감(反感)으로 중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지게 된다. 아이러니하게 그들이 한국에서 받은 상처와 한국과 한국인들을 향한 배신감이 중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다. 허련순이 한·중수교 직후의 작품인 『바람꽃』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감정과 정체성의 혼란에 방점(傍點)을 찍었다면 20년 뒤의 작품인 『중국색시』에서는 조선족들이 가진 반한 감정, 정체성의 혼란과 더불어 이를 뛰어넘는 정체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인인 한국인과 조선족이 그들을 규정짓는 틀을 뛰어 넘어 아픔을 가진 개인들로서 서로의 정신적 갈등을 치유하고 타자에 대한 포용을 보이는 것이다. 허련순 작가가 꿈꾸는 디아스포라의 종착점이자 새로운 시작점인 듯하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만 명 조선족 인구 중 공식적으로만 72만 명이 한국에 들어와 있고 미등록 숫자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조선족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을 것이라 추정된다. 중국을 떠나 한국에서 이주, 정주하고 있는 조선족 인구는 해마다 늘고 있기에 이런 추세는 조선

족 자치구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정도이다. 2007년 ‘고용허가제(방문취업)’가 도입되고 2010년부터 무연고 동포방문취업제(시험을 통한 전산추첨제)를 실시하면서 중국동포들은 쉽게 ‘한국행 소원’을 이루었다. 그러나 현재 조선족들은 입국보다 ‘F4 체류자격변경’이나 ‘영주권’ 따기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⁶⁴⁾ 90년대 한국 진출기에 조선족들은 모두 ‘돈 벌고 돌아오리라’면서 한국으로 떠났지만 20년 후인 지금까지 귀향자는 불과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것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한국방문’이라는 목적에서 ‘한국체류’로 조선족들의 한국 내의 목적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조선족은 단순히 경제적 조건만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사회문화적이고 심리적인 귀속의식 등의 요소가 결합된 자발적인 선택으로 한국에서 정주를 희망한다(김현선, 2010).⁶⁵⁾ 귀국 후의 직업 선택문제, 사회수준, 환경, 생활수준 등의 이유로 한국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 이주민에서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조선족들은 그 숫자만큼 한국에서의 정주를 희망하고 있어 앞으로 정주하는 한국인으로서의 가능성 또한 가장 높은 집단이다. 조선족은 자발적 이주의 역사부터 시작되었지만 민족적 역사의 아픔을 이주배경으로 지니고 있다. 그들과 같은 듯, 하지만 다른 민족임을 재차 확인하여 냉정한 선긋기를 하는 한국 사회의 시선의 변화가 요구되는 때이다. 더 이상 단일민족의 이데올로기와 ‘우리와 같지 않음’을 이유로 더 이상 그들로서 ‘그들’을 방치하지 않길 바라며 또 하나의 ‘우리’로서 그들을 바라보는 범(汎)사회적 시선이 필요할 때이다.

64) 코리아안 드림, 조선족 삶의 새로운 추형(연변라지오TV방송국, 2014,2,26)

<http://www.iybtv.com/people/p/54446.html>

65) 김현선, 『한국체류 조선족의 밀집거주 지역과 정주의식-서울시 구로, 영등포구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2010, 87호, 257면.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허련순, 『바람꽃』, 범우사, 1996.
허련순,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 인간과 자연사, 2004.
허련순, 『중국색시』, 복치는 마을, 2016.

2. 단행본

- 박경태, 『인종주의』, 책 세상, 2009.
베네딕트 앤더슨, 『상상의 공동체』, 나남, 2004.
이종훈, 『재외 동포정책의 현황과 향후방향』, 유제건 편저, 『21세기 한국의 외교정책』, 나남, 1999.
이종훈, 『재외 동포법 개정론과 폐지론의 합리성 검토』, 정인섭 편저, 『재외 동포법』, 사람생각, 2002.
이익섭, 『사회언어학』, 민음사, 1994.
정인섭, 『재외 동포법의 문제점과 향후 대처방안』, 정인섭 편저, 『재외 동포법』, 사람생각, 2002.

3. 논문

- 강수옥, 『중국 조선족의 역사적 형성과 정체성』, 『디아스포라 연구』, 2013, 7권 1호, 89-101면.
강유진, 『한국 남성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 가족관계학회지』, 1999, 4권 2호, 61-80면.
강진구, 『모국 체험이 조선족 정체성에 미친 영향 연구: 허련순의 『바람꽃』을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2009, 2권, 101-125면.
김미란, 『허련순의 〈중국색시〉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의 치유 상상』, 『현대소설연구』, 2015, 60호, 149-175면.
김수미, 『대상화와 문제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 뉴스 보도 연구』, 한국방송학회 편저, 『한국 사회 미디어와 소수자 문화정치』,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144-185면.
김숙자, 『한국남성과 중국 조선족여성과의涉外혼인실태와 그 대책』, 『가족법연구』, 1998, 12호, 93-137면.
김현선, 『한국체류 조선족의 밀집거주 지역과 정주의식-서울시 구로, 영등포구를 중

- 심으로, 『사회와 역사 (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2010, 87호, 231-264면.
- 노영돈, 『소위 재외 동포법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논총』, 2권, 1999, 57-71면.
- 노영돈, 『재외 동포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47권 3호, 2002, 97-119면.
- 문형진, 『한국내 조선족 노동자들의 갈등사태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2008, 12권 1호, 131-156면.
- 박경춘, 『허련순의 소설을 통해 본 중국 조선족들의 존재양상과 ‘디아스포라’ 정체성 : 『바람꽃』과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2016.
- 박기갑, 『한국체류 중국동포의법률문제』, 『강원법학』, 2001, 제14권, 301-323면.
- 설동훈, 『한국 사회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외국인노동자의 유입과 적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신경희, 양성은, 『국제결혼가족의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06, 44권 5호, 1-8면.
- 신영화, 『한국인 남편과 조선족 아내의 부부문제』, 『가족과 가족치료』, 2002, 10호, 1-24면.
- 신정아, 한희정, 『한국 사회에서 조선족으로 살아가기 : 동포모니터링단 <강강술래> 활동 및 단위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소통학보』, 2016, 15권 3호, 235-282면.
- 이종훈, 『재외 동포정책과 재외 동포법의개선방향』, 『재외한인연구』, 11호, 2001, 165-190면.
- 이종훈, 『재외 동포법』의 개정 문제, 『한일민족문제연구』, 5권 5호, 2003, 109-129면.
- 이진영, 『한-중외교관계와 재중 동포 — 재외 동포법 헌법 불일치 결정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8권 4호, 2002, 79-113면.
- 장은영, 『한국어를 배워야 하나요?: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에 관한 다중 사례연구』, 『이중언어학』, 2011, 47호, 139-164면.
- 전가흔, 『허련순 소설의 주변부 의식에 대한 연구 : 『바람꽃』과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 경남대학교 석사논문, 2012.
- 정선주, 『소설 『완득이』를 통해 본 한국 사회의 다문화 판타지 고찰: 지적의 이데올로기론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2014, 7권 2호, 129-158면.
- 정선주, 『일본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족생활 갈등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결혼 동기별 차이를 중심으로』, 『디아스포라연구』, 2018, 12권 2호, 145-196면.
- 정영훈, 『단일민족의식의 위기』, 『정신문화연구』, 24권 4호, 201, 185-313면.
- 정현욱, 『조선족 귀화여성들에 관한 연구: 유입배경, 수용환경 및 부적응에 관한 고찰

- 』, 『정치정보연구』, 1999, 2권 3호, 103-123면.
- 차성연, 『중국 조선족 문학에 재현된 ‘한국’과 ‘디아스포라’ 정체성-허련순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2010, 31호, 75-98면.
- 최병우, 『허련순의 장편소설에 나타난 정체성의 변화』, 『한국문학논총』, 2015, 71집, 447-477면.
- 한홍화, 『『바람꽃』을 통해 본 조선족 정체성의 변이양상: 주인공 의식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2010, 38호, 193-216면.

4. 기타

- 통계청,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 보도자료』, 2016.
- 정해숙, 김이선, 이택면, 마경희, 최윤정, 박건표, 동계연, 황정민, 이은아,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6.
- 한겨레21, 『내게 한국인이냐고 묻지 말라』, 2007년 5월 03일.
<http://legacy.h21.hani.co.kr/section-021003000/2007/05/021003000200705030658053.htm>
1(검색일:2019.7.01).
- 연변라지오TV방송국코리안 드림, 『조선족 삶의 새로운 추형』, 2014년 2월 26일.
<http://www.iybtv.com/people/p/54446.html>(검색일: 2019. 7. 07).

<Abstract>

Korea and Koreans in the eyes of Chinese Koreans —Focused on the works of Huh Lien-soon

Jung, Sun-Joo

Korean-Chinese who were unable to enjoy the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under the 1999 Act on Overseas Koreans. Since then, with the revision of the 2004 law, they have gained the status of their compatriots but still face restrictions and discrimination based on the type of stay visa compared to other compatrio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Korean-Chinese living in Korea with these restrictions and discrimination perceive Korea and Koreans. Huh Ryeon-soon is a Chinese first-class novelist and Chinese Korean writer who has published the highest recognition and many books in Korea. Through her two books, *The Wind Flower* in 1996 and *the Chinese Bride* in 2015, I would like to see Korea and Koreans in the eyes of Korean-Chines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tarting with homogeneity and then with heterogeneity.” Korean society feels heterogeneity due to the Korean-Chinese language different from Korean and the social system close to North Korea, and treats them as foreigners rather than ‘the same ethnic group’. Second, “Good Korea, bad Koreans.” Since the early Korean-Chinese started living in Korea with a focus on 3D jobs and simple labor, Korean society recognizes them as “migrant laborers who came to make money in poor countries.”

Third, “We of their own.” Korean-Chinese who do not belong to

Koreans are confronted with verbal violence and physical violence in Korean society, and they are disgusted and excluded. Fourth, “Swallows when it's sweet and spits when it's bitter.” Although they were welcomed as necessary human resources in Korean society right after Korea-China diplomatic relations, they gradually became a shabby bitter presence in Korean society as labor and productivity problems arose.

Key words: Huh Lien-soon, Chinese Koreans, the Joseon-jok, 《A Windflower》, 《The Chinese Bride》

투 고 일 : 2019년 8월 25일

심 사 일 : 2019년 8월 19일-9월 8일

게재확정일 : 2019년 9월 10일

수정마감일 : 2019년 9월 26일